

전북 시끔굿 무가(巫歌)의 구성과 의미

출포·김봉순·신귀녀·전금순 무가를 중심으로

임니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음악학 전공

nina214@hanmail.net

- I. 머리말
 - II. 전북 시끔굿의 절차 구성
 - III. 전북 시끔굿 거리별 내용 구성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593).

I. 머리말

전북 시غم굿은 전북 지역에서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 행하는 곳이다. 전북 세습무에 의한 무속의식은 예로부터 예술적으로 뛰어났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전승이 일찍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에서 시غم굿이 중요하게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197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보고서에서는 “시غم굿은 아직도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해 가까울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무가(巫歌) 또는 무적의례(巫的儀禮)라면 시غم굿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¹ 라고 하였다.

전북 시غم굿에서는 무당이 주로 노래로써 의식을 진행하여 무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또한, 전라도 세습무당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음률과 굿문서를 꼽는 것²을 통해서 노래 가사와 음악으로 결합된 무가는 중요한 연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시غم굿에서는 서사무가보다 일반무가³로 된 절차가 더욱 많음에도⁴ 서사무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⁵, 일반무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
- 1 임석재, 「제79호 줄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1집(문화재관리국, 1970), 417쪽.
 - 2 이영금, 「전통문화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호남지역 세습무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4집(비교민속학회, 2011), 368쪽; 김성식, 「전북지역 세습무의 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3쪽.
 - 3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가 아닌 나머지 무가를 편의상 ‘일반무가’라 하겠다. 일반 무가라 한 이유는 서사무가가 아닌 무가를 모두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 4 예를 들어 「줄포무악」 14절차 중 서사무가는 <칠성풀이>·<장자풀이>·<오구풀이>·<제석굿>의 4절차이며, 나머지 10절차는 서사무가가 아니다. 임석재, 앞의 자료(1970).
 - 5 서사무가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윤석, 「서사무가 칠성풀이 연구: 칠성풀이

이는 전북 무속의식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전승이 쇠퇴한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이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무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반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⁶ 그리고 서사무가는 설화와 같이 줄거리를 갖춘 긴 이야기로 구성된 무가이므로 구조 파악이 쉬운 반면, 일반무가는 여러 다른 종류의 내용이 결합한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무가의 접근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

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서대석, 「〈칠성풀이〉의 연구: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65권(1988), 81-110쪽;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동이성」,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중앙문화사, 1995); 박현국, 「장자풀이 무가 고찰」, 『비교민속학』 제14집(1997), 159-187쪽;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형성과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1997), 393-427쪽; 박현국, 「바리데기 무가 고찰」, 『비교민속학』 제15집(1998), 253-283쪽; 정충성, 「서사무가 ‘장자풀이’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홍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홍태한, 「장자풀이 무가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4집, 경희대학교민속학연구소(2001), 35-56쪽; 유선영, 「〈장자풀이〉의 현세 지향적 성격: 정읍 전금순본을 중심으로」, 『고향논집』 제46집(2010), 53-74쪽; 정제호,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별적 성격과 주제 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이영금, 「서사무가와 판소리의 상관성: 전북지역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8집(2011), 195-232쪽; 신호림, 「〈장자풀이〉의 서사적 지향과 제의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57집(2017), 153-180쪽; 정제호, 「〈장자뭇〉 전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장자풀이〉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신화적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36권(2017), 393-425쪽 등.

- 6 전금순이 행한 전북 씨꿈굿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논하면서 무가는 간략하게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영금, 「전북지역 세습무의 삶과 무업: 정읍 단골 전금순의 무계와 굿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2집(2006), 359-412쪽; 이영금, 「오구 씨꿈굿의 구조와 기능: 전북 단골 전금순의 굿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5집(2007), 71-105쪽; 이영금,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정읍 세습무 전금순 굿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참고로 전북 굿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면서 서사무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영금,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이영금, 「전북지역 무당굿의 전반적 성격과 공연학적 특성」, 『공연문화연구』 10권(2005), 283-322쪽; 김성식, 「전북지역 세습무의 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지금까지 한국무속 연구는 주로 현지조사를 통한 무가 사설 정리 작업과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문헌연구는 서사무가 외에 큰 진척이 없으며, 다량의 무가 채록 자료가 축적됐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⁷ 이처럼 무가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가의 기능과 의미, 성격, 사상·철학, 분류, 타 장르·타 지역과의 연관성 등의 특징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전북 무속이 예술적으로 월등했다는 것과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이 쇠퇴하는 가운데에서도 씨름굿을 비교적 늦게까지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였다는 것에서 전북 씨름굿에 주목하였다. 또한, 무가 연구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며, 서사무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이제까지 일반무가를 분석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일반 무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보고서 및 무가 자료집에 채록된 전북 씨름굿의 일반무가 사설을 분석하고 거리별로 무가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데 있다.

7 다른 지역에서의 일반무가 연구는 특정 곳으로 한정하여 무가 내용을 살펴본 것과 기능구조 틀에서 전남 씨름굿의 무가를 분석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사무가에 비해서는 논문 편수가 한참 못 미친다. 그리고 일반무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찾아 정리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타 지역에서의 일반무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경신, 「일반무가의 작시 방법: 신격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본 부정굿 무가의 경우」, 『구비문학연구』 제3집(1996), 45-64쪽; 홍태한, 「진 오기굿의 뜬대왕과 사재삼성거리 무가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9집(2004), 347-370쪽; 신연우, 「서울굿 무가 노랫가락의 양상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21집(2005), 427-457쪽; 신연우, 「서울 굿의 타령·만수받이·노랫가락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11집(2006), 267-288쪽; 홍태한, 「황해도굿의 무가: 만세받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6집(2008), 7-29쪽; 신연우, 「경기도 동막 도당굿의 문학적 연구」, 『한국무속학』 제28집(2014), 61-83쪽; 이경엽, 「무가의 서정적 표현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4집(1997), 429-454쪽; 이경엽, 「전남무가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등.

기존 자료에서 전북 시김굿 무가가 채록된 무녀는 대략 11인이다.⁸ 11인 모두 다루기에는 무가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채록이 미흡한 연행자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무가 내용이 충실한 줄포무악의 박소녀와 성씨⁹·김봉순·신귀녀·전금순의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연행한 일반무가로 된 제차 중, 한명만 채록된 절차는 제외하였고 적어도 두 명이 동일한 절차명을 부른 경우를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⁰

전북 시김굿의 일반무가 내용 분석은 무가 사설이 여러 종류의 내용이 집합하여 구성되므로 무가 사설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이 방법은 긴 사설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전북 시김굿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북 시김굿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면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전북 시김굿 무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연구로써 전북 무가의 보편성과

8 무녀 11인의 무가 출처는 다음과 같다. 임석재, 앞의 자료(1970), 395-645쪽의 부안 줄포무악 박소녀·성씨·김씨; 김태곤, 『한국무가집 2』(집문당, 1971), 44-98쪽의 군산 장금순·김야무; 김태곤, 위의 책(1971), 328-361쪽의 고창 배성녀; 최길성, 『한국무속지 1: 전남·전북·경남 편』(아세아문화사, 1992), 67-95쪽의 전주 최문순; 김성식, 『전북의 무가』(전북도립국악원, 2000), 50-83쪽, 128-145쪽, 169-218쪽의 군산 김봉순·윤말례·정읍 신귀녀; 이영금, 『전북 셋김굿: 전금순의 무가』(민속원, 2007)의 정읍 전금순.

9 줄포무악은 박소녀가 조왕석·서낭석·칠성풀이·손님석·장자풀이·성주석·조상석·오구물림·질답이·중천맥이, 성씨가 철용석·지신석·칠성풀이·성주석·오구시김굿, 김씨가 장자풀이를 노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세 무녀 중 박소녀와 성씨의 무가가 연구 대상이다.

10 이러한 기준으로 표1 전북 시김굿 절차 구성에서 본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절차는 산자 발원을 위한 절차인 '조왕굿·성주굿·철용굿·지신굿·삼신굿·손님굿·조상굿', 망자 천도를 위한 '뉘전올리기·시김·고풀이·길답음', 그리고 중천맥이이다. 참고로, 전북 시김굿을 연행한 11인 중 군산의 김봉순과 정읍의 신귀녀만이 망자 천도를 위한 거리에서 조상굿을 행함으로 조상굿은 산자 발원에 포함하였다.

특이성 등을 밝히는 논의는 추후 연구로 미루겠다.

II. 전북 시김곳의 절차 구성

전북 시김곳 거리별 내용 분석에 앞서 전북 시김곳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다. 줄포무악과 김봉순·신귀너·전금순이 부른 시김곳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산자를 위한 제차들을 진행하고, 이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차들이 이어지며, 곳 마지막에는 모든 잡귀잡신을 먹여 보내는 제차로 마무리한다(표1¹¹ 참고).

전반부의 산자 발원, 후반부의 망자 천도를 위해 행하는 절차 구성은 목은시김곳의 특징이다. 목은시김곳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이상 되었을 때¹² 특정한 날을 받아서 하는데, 망자로 인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여겨 산 사람들의 재수를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것이다.¹³ 그래서 이곳을 시김곳¹⁴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재수곳이기도 하다. 목은시김곳과 같은 절차 구성은 서울의 안안팍곳(목은진오기곳), 전남의 씻김곳, 동해안 오구곳 등에서도 발견된다.¹⁵

이러한 전북 시김곳의 절차 구성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산자 발원, 망자 천도, 곳 마무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북 시김곳 무가의 내용을 분석하려 한다.

11 절차명은 있으나, 무가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제차는 표에서 '[']로 표시하였다.

12 입석재, 앞의 자료(1970), 418쪽.

13 이영금, 앞의 논문(2007), 72-73쪽.

14 시김곳에는 목은시김곳 외에도 사람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행하는 진시김곳과 산 사람에게 곳을 하는 산시김 등이 있다. 김성식, 앞의 책(2000), 44쪽.

15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곳 무가 사실집』(월인, 2006), 50-70쪽; 이경엽, 앞의 논문(1997), 30-31쪽.

표1- 전북 시김굿 절차 구성

연행자 (재록년도)	부안 줄포무악 박소녀·성씨·김씨 (1966-1970)	군산 김봉순 (2000)	정읍 신귀녀 (1996)	정읍 전금순 (2007)
산자 발원	조왕석	지두서	성주굿	부정풀이
	철용석	조왕석	삼신석	조왕굿
	[선영알림]	[성주굿]	철성풀이	철용굿
	자신석	삼신석	장자풀이	성주굿
	서낭석	철성풀이	손님석	자신굿
	철성풀이	장자풀이	자신석	조상청문
	손님석		제석굿	철성풀이
	장자풀이			조상굿
	성주석			손님굿
	조상석			제석굿
			조상해원풀이	
망자 천도	오구물림(바리데기)	오구물림	오구물림	지옥풀이
	소당개시김(오구시김굿)	조상굿	조상굿	오구세왕풀이 (바리데기)
	[전올리기]	고풀이	넋올리기	싸김
	[고풀이]		[씻김]	넋전올리기
	질뉘이		고풀이	길뉘음
			길뉘음	예순육갑풀이
			장자풀이	
굿 마무리	중천매이	중천매이	뒷풀이	중천매이 , 내전

Ⅲ. 전북 시김굿 거리별 내용 구성

1. 산자 발원

1) 조왕굿

굿에서는 각 절차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부르기 전에 굿이 열리는

시간이나 장소, 굿의 연유를 밝히거나 세상만물의 처음 등을 노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도입’으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그런데 전북 굿에서는 무당이 무조신(巫祖神)으로 숭배하는 공심을 제일 먼저 거론한다.¹⁶

부안 줄포무악의 박소녀는 가장 먼저 무조신인 공심을 청신(請神)하고, 시공간 우주론을 부른다. 여기서 ‘시공간 우주론’이라 한 것은 굿이 열리는 공간과 시간을 철학사상에 의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굿이 열리는 장소·시간을 고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함이다.¹⁷ 이어서 생기복덕법(生氣福德法)¹⁸을 노래하는데, 이는 좋은 날을 받아 굿을 정성껏 준비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關於丑) 인생어인(人生於寅)’에서 비롯된 내용인 ‘천지인(天地人) 창제’에 관한 창세무가(創世巫歌)도 노래한다.

그 다음은 자생(子生)부터 해생(亥生)까지의 12지지 남녀 조왕신과, 팔만사천 조왕, 당산, 철유, 지신, 오방신장, 팔부지신, 삼신조왕 등을 열거하고 화해동심(和解同心)할 것을 청한다. 화해동심은 화해 곧 안 좋은 것을 풀어주고, 동심 곧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신께 안 좋은 것은 풀어주고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16 무조신 공심에 관한 무가는 대개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저러지요·절에 주요 등), 남산이 본(本)이로다’로 부른다. 이는 ‘우리임금아, 공심은 우리 제례(祭禮)의 주인(임금)이요, 남산이 본향(本鄉)이다’로 이해된다. 임이나, 「공심 무조권(巫祖圈)과 무조신(巫祖神)의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7집(2013), 223-263쪽.

17 박소녀는 ‘대는 석가님의 대요, 대월은 서른 날, 소월은 이십구일’에서 지금 시대가 석가님의 시대라고 하였고, 음력 큰달 30일과 작은달 29일까지를 언급하여 구체적인 시간 대신 역법의 원리로 굿 시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국(國)이요 팔만은 사두연에’ 사실에서 ‘팔만’과 ‘사두’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타 지역 무가에서도 불교의 세계관인 사바세계(娑婆世界)·남십부주(南瞻浮洲) 등으로 굿 장소를 표현한 것과 같이 철학 사상에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8 생기복덕법은 오늘 일진(日辰)과 방위(方位)의 길흉(吉凶)을 예측하는데 사용한 법으로 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택일(擇日)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정통풍수지리학회(www.poongsoojiri.co.kr/board_nwCF20).

부분을 감응(感應)이라 하였고, 후술에서 흠향(歆饗) 또는 신께 굿을 잘 받으시라는 내용도 감응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불설 조왕경>, 오방위 오방색 조왕신¹⁹, 자방(子方)부터 해방(亥方)까지의 12지지 방위 택신(宅神) 조왕신, 지신(地神) 등을 열거하고 수차례 감응·화해동심하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원성취 발원을 부른다.

군산의 김봉순은 도입 다음에 다홍치마에 초록 저고리 등 조왕의 모습과 당산은 할아버지·성주는 아버지·조왕은 따님이라는 조왕 내력, 그리고 ‘섬밥·말밥을 지어 먹이는 조왕님네인데 조왕님이 없으면 배가 고파 못 산다고 한 음식 관장하는 조왕신에 대해 노래하였다. 이 사설은 김봉순만이 부른 것으로, 조왕의 모습과 내력을 드러내고, 조왕의 먹거리신임을 부각한 점이 흥미롭다. 김봉순도 발원으로 굿을 마무리한다.

정읍의 전금순이 부른 조왕굿은 다른 연행지들에 비해 확대된 형태이다. 전금순은 조왕굿을 하기 전에 내림을 노래한다. 내림에서는 도입에 속하는 내용이 많고, 여러 신을 청한 후 신께 굿을 즐겁게 받고 내림을 받으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내림 이후 노래한 조왕굿에서는 <불설환희조왕경>과 내림에서도 부른 <조왕위목>·<불설조왕경>을 구송하고, 조왕신께 <신풀이 무가>로 오신(娛神)하고, <고풀이 무가>로 발원한다.²⁰

지금까지 전북 조왕굿의 사설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 조왕굿은 ‘도입-신 호명·청신·감응-(조왕 관련 내용)-신 호명·감응-발원’이 기본구성으로 보인다. 전북 조왕굿에서는 김봉순만이 본풀이에서나 나올 법한 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나, 내력 언급 및 조왕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조왕의 음식

19 東의 靑帝將軍 조왕신, 南의 赤帝將軍 조왕신, 西의 白帝將軍 조왕신, 北의 黑帝壯觀 조왕신, 中央 黃帝將軍 조왕신. 임석재, 앞의 자료(1970), 426쪽.

20 전금순은 <신풀이 무가>와 <고풀이 무가>를 여러 절차에서 노래하는데, 이 두 무가에 대해서는 3) 철옹굿에서 설명하겠다.

표2- 조왕굿 내용 구성

부안 박소녀		군산 김봉순		정읍 전금순	
①도입	무조신(공심)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시공간 우주론		시공간 우주론		공간 우주론
	생기복덕법 (生氣福德法)		시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굿 시간		굿 연유 (치성)		〈산신풀이〉
	〈창세무가〉 천지인 창제		굿 연유		시간 우주론
②신 호명, 청신, 감응	12지지 남녀 조왕신, 각 신 청신, 화해동심(和解同心)	②조왕 관련 내용	조왕 모습, 조왕 내력, 조왕 음식 관장	(1) 내림	②청신, 감응(화해동심)
①도입	굿 장소	③ 발원	①도입		굿 연유(치성)
③신 호명, 감응	〈불설 조왕경〉, 오방위 오방색 조왕신, 12지지 방위 택신 조왕신, 화해동심	④ 신 호명	12지지 방위 택신 조왕신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④발원		⑤감응, 발원			치국잡이
					명당잡기
				산세풀이	
				굿 장소·시간	
				굿 연유(치성)	
				② 청신, 신 호명, 감응	청신, 감응(흥향)
					〈조왕위목〉
					조왕, 성주, 철웅 등
					오방위 오방색
					성주조왕
					〈불설조왕경〉
					감응
					③오신, 감응
				(2) 조왕 굿	①도입
					굿 연유
					②청신, 감응, 발원
					〈불설환희조왕경〉
					〈조왕위목〉, 감응(화해동심), 발원
				〈불설조왕경〉	
				①도입	
				굿 연유(치성)	
				③신 호명, 감응, 발원	
				〈불설조왕경〉, 감응, 발원, 〈불설조왕경〉	
				④오신· 발원	
				〈신풀이무가〉· 〈고풀이무가〉	
				⑤발원	

주관에 관한 것을 부른 점이 눈에 띈다. 전금순은 조왕굿에 '내림'을 추가하였고, 조왕 관련 경을 다른 연행자보다 많이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2) 성주굿

성주는 집과 밀접한 신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성주신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 인식하였고, 집 자체로 여겨 집 짓는 것을 '성주 한다'라고도 한다.²¹ 이 때문에 전북의 성주굿은 집 짓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명당 터를 잡는 것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박소녀는 도입 다음으로 명당 터 잡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을 부른다. 이 터가 명당임을 설명하는 명당풀이·역대왕의 도읍에 관한 치국잡이·무학대사가 명당 터를 보고 도읍을 정한 내용인 명당잡기가 그것이다. 이 세 종류의 무가는 일반적으로 굿 시작할 때 도입에서 노래하지만, 박소녀 무가에서는 이들 무가를 성주 관련 내용으로 판단하여 도입에 포함하지 않았다.²² 명당 터를 정한 이후에는 집터를 닦는 지경다지기를 하므로, 명당잡기에 이어서 지경다지기를 부른다.

성주굿에서는 성주 근본을 경상도 안동 제비원이라 하였고 제비원에 술씨를 받아 뿌렸더니 집 짓는데 사용할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집 짓는데 필요한 재목(材木)을 마련하는 대목을 부른다. 목수들을 대동하고 실근 실근 톱질하여 용도에 따라 재목을 마련한다.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에 집의 골격이 거의 만들어지면 상량(마룻대·종도리)을 올리는 상량식(上樑式)을 거행한다. 성주굿에서는 날을 받아 음식을 차려서 주인과

21 임승범, 「성주신앙의 지역별 양상과 그 의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2권(2009), 17쪽, 36쪽.

22 참고로 전금순은 우리나라의 산과 강 형세를 설명한 산세풀이와 함께 치국잡이·명당잡기를 조왕굿 부르기 전, 내림에서 노래하였다(표3 참고).

목수들이 상량식을 행하는 모습과 공사 관련 내력 및 축문 등의 상량문(上樑文)을 기록한 상량을 올리는 것, 이러한 상량식에서 성주를 집에 모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²³

이 다음은 암기와 솟기와 등의 기와 얹기와 방·문 등을 내는 대목을 부르고, 집안 치레 또는 집밖 주변 치레가 좋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전금순만이 사당 짓는 것과 사당 주변 모습을 묘사하였다. 집밖 치레에 이어서 집밖에 온갖 화초가 심어있다고 하면서 〈화초타령〉을 부른다.

건축물을 완성했다고 해서 집짓기가 끝난 것은 아닌 듯하다. 무가에서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의 글을 문에 붙이는 입춘서 붙이기, 가내에 재물이 들어오길 바라는 의미로 엽맞이와 노적맞이를 노래한다. 이렇듯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야 비로소 집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들 무가는 동시에 재가집의 축원이기도 하다.

뒷부분에서는 오신에 해당하는 성주풀이, 옥관자 올리기 등을 부른다. 박소녀는 ‘성주를 모시고 놀아봅시다’라고 말한 후 성주풀이를 하고, 옥관자로 받으라는 내용에 옥관자 올리기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신귀녀는 ‘옥관자 붙이시자 금관자 붙이시자 유노마노 호박관자 붙이시자’를 노래하면서 물에 젖은 백지를 던져 벽에 붙이고 성주석을 끝낸다고 한다.²⁴ 전금순은 옥관자 올리기를 두 무녀보다 길게 부르고 옥관자 올리기 놀이를 한다.²⁵ 그리고 〈성주풀이〉와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를 부른다.

23 가옥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했을 시, 성주를 새로 받아 모신다. 다른 가신(家神)들은 새집이 마련되면 집안 이곳저곳 자연스럽게 좌정하나, 성주는 상량식이나 안택의 한 절차로서 초빙되어 앉혀진다. 임승범, 앞의 논문(2009), 34쪽; 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24호(2007), 402쪽.

24 김성식, 앞의 책(2000), 163쪽.

25 이영금, 앞의 책(2007), 42쪽, 109쪽.

표3- 성주굿 내용 구성

부안 박소녀		정읍 신귀녀		정읍 전금순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1) 내림	①도입	굿 연유	
			시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생기복덕법		치국잡이				
	〈창세무가〉 천지인 창제		명당잡기				
	산세풀이		산세풀이				
	굿 시간·장소		굿 장소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②발원				
②성주 관련 내용	터잡기	②성주 관련 내용	성주 근본 (제비원 솔씨가 집 재목(材木) 됨)	2) 성주 굿	②성주 관련 내용	굿 연유	
			치국잡이			무조신 청신	
			명당잡기			굿 석 설명	
	〈지경다지기〉		굿 연유				
	성주 근본 (제비원 솔씨가 집 재목(材木) 됨)		중의 차례			성주 근본 (제비원 솔씨가 집 재목(材木) 됨)	
	〈성주풀이〉 (집 재목(材木) 마련)		명당잡기			집 재목(材木) 마련	
	상량식(上樑式)		집 재목(材木) 마련			명당잡기	
	집 재목(材木) 마련		〈지경다지기〉			〈지경다지기〉	
	상량식(上樑式)		상량식(上樑式)			〈상량식(上樑式)〉	
	기와 얹기		기와 얹기			〈기와 얹기〉	
	기와 얹기		방·문 등 만들기			상량식(上樑式)	
	집밖차례		명당인 집주변 묘사			기와 얹기	
	〈화초타령〉		〈화초타령〉			방·문 만들기, 집안차례	
	집차례		입춘서 붙이기			옥관자 올리기	
	입춘서 붙이기		[관자 붙이기]			〈성주풀이〉	
	업맞이					〈신풀이무가〉	
	노적맞이					〈고풀이무가〉	
	③발원					입춘서 붙이기	
	④오신		〈성주풀이〉				사당 짓기, 사당 주변 차례
			옥관자 올리기				〈화초타령〉
⑤신 호명	오방천왕 성주, 각 살신		업맞이				
			오방 10천간 성주대신				
⑥발원			사용신(四龍神)				
			12지지 남녀 성주대신				
			가신(家神) 청신				
			오방신의 광한령				
			12지지 명당 안택신				
		감응					
		오방 10천간 성주살신, 각 성주살신					
		〈불설명당경〉					
		④발원					

박소녀는 동방부터 중앙까지의 오방천왕 성주성신 등을 열거하고 신께 이 명당 터에 명과 복을 접지해 주고, 부귀공명 등을 기원하면서 굿을 마무리한다. 이렇듯 박소녀가 간략하게 신을 열거한 것과 달리 전금순은 오방 10천간 성주대신, 사용신(四龍神), 자생부터 해생까지의 12지지 남녀 성주대신, 당산·철용·지신·조왕 등의 가신, 동방부터 중앙까지 오방신의 광한령, 자지(子地)부터 해지(亥地)까지의 12지지 명당 안택신, 오방 10천간 성주살신, 각 성주살신을 열거한다(표3의 ③ 참고). 그리고 <불설명당경>을 부르고 발원으로 성주굿을 끝낸다.

성주굿은 '도입-성주 관련 내용-오신-신 호명-발원'으로 구성된다. 전금순은 보통 내림을 굿 시작 처음에 한번만 진행한 것과 달리 조왕굿에서처럼 성주굿 이전에 내림을 부른 것과(표3 참고) 뒷부분에 성주 관련 다양한 신을 열거한 점이 다른 연행자와 다른 점이다. 성주굿 무가에는 성주가 집과 밀접한 신이라는 것과 전통 가옥 짓기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문화가 잘 담겨 있다.

3) 철용굿

부안 줄포무악의 성씨와 정읍의 전금순은 철용굿 도입에서 무조신 청신, '굿은 한 굿이라도 석은 각가지 굿이다'라는 굿 석 설명, 이 석이 철용굿이라고 밝히는 굿 연유를 노래한다. 여기에 성씨는 시공간 우주론, 굿 장소, 치성으로 굿 준비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더했다.

성씨는 도입에 이어 치국잡이, 산세풀이, 명당풀이 등을 부른다. 철용은 집터와 관련된 신으로, 지신의 성격과 혼용된다. 흔히 집 뒤꼍을 철용이라고 한다.²⁶ 철용굿은 '당산맞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집 뒤를 당산이 빙 둘러싸

2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 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455쪽.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⁷ 이러한 이유로 성씨는 명당 터와 관계된 무가들을 도입 다음으로 노래한 것이며, 세 무가가 집터와 관계된 철용신의 성격과 부합하므로 이들 사설을 도입이 아닌 철용 관련 내용에 포함하였다. 명당풀이에 이어서는 앞도 당산, 뒤도 철용, 좌우 철용 할아버지·할머니, 일곱 칠성, 일월성신 등이 수차례 감응하여 소원성취시켜 달라 발원하였다.

전금순은 도입 다음으로 오방위 오방색 천룡대신, 12지지 천룡대신을 청신(請神)하고, 철용신이 즐겁게 굿을 받았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조왕굿에서와 같이 <신풀이무가>로 오신하고, <고풀이무가>로 발원한다. 전금순 무가에서는 <신풀이무가>를 부르면 항상 <고풀이무가>가 이어 나온다는 것과 대부분 <고풀이무가>는 망자 천도를 위한 거리에서 노래하지만 전금순만이 여러 거리에서 부른 점이 특이하다.

성씨는 <신임무가>로 오신하고 재가집 발원으로 철용굿을 마친다. <신임무가>는 '신이야 신이야 신이로다, 오양신선의 신이로다'의 가사가 특징이

표4-철용굿 내용 구성

부안 성씨		정읍 전금순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굿 석 설명
	시공간 우주론		굿 연유
	굿 연유		
	굿 장소		
	굿 석 설명		<공심무가>
굿 준비 치성			
②철용 관련 내용, 감응	치국잡이, 명당잡기(산세풀이), 명당풀이, 감응	②신 호명, 청신	오방위 오방색 천룡대신, 12지지 천룡대신
③발원		③감응(흥향)	
④오신	<신임무가>	④오신·발원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
⑤발원		⑤발원	

27 이영금, 앞의 책(2007), 40쪽.

다. 전금순의 <신틀이무가>에서도 이 사설을 부르므로, 부안 줄포무악의 <신틀이무가>와 전금순의 <신틀이무가>는 동일 계열 무가이다.

철용굿은 성씨가 '도입-철용 관련 내용·감응-발원-오신-발원', 전금순이 '도입-신 호명·청신-감응-오신·발원-발원'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중 도입, 감응, 오신, 발원의 내용이 두 무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철용굿은 다른 절차와 비교했을 때 사설 내용이 간략하다. 전승 과정에서 무가 내용이 빈약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4) 지신굿

지신굿도 도입부터 시작한다. 도입 다음으로 부안 줄포무악의 성씨는 지신(地神),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오방신장(五方神將), 팔부지신(八部地神), 토주신령(土主神靈), 당산, 철용, 오방위 오방색 지신²⁸을 청신하고, 정읍의 전금순은 당산, 철용, 오방신장, 토주대감, 문호대감, 수문장님, 오방위 오방색 장군 지신, 자생부터 해생까지의 12지지 남녀지신을 청신한다. 지신은 집터를 관장하기 때문에 집터와 관련 있는 신들을 청한다. 그런데 전금순은 성씨와 달리 대문을 지키는 문호대감과 수문장도 내림을 받으라고 노래하였다. 이 신들은 집안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신을 굿판에 청신하려면 문호대감이나 수문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 신들을 부른다고 한다.²⁹

그 다음으로는 지신 관련 내용이 이어지는데, 정읍의 신귀녀는 지신의 근본을 상기동 주초 밑이라 하였다.³⁰ 전금순은 지신의 내력부터 노래하는

28 東의 靑帝地神, 南의 赤帝地神, 西의 白帝地神, 北의 黑帝地神, 中央의 黃帝地神. 임석재, 앞의 자료(1970), 438쪽.

29 이영금, 앞의 책(2007), 44쪽.

30 고창의 배성녀 무가에서도 이 내용이 발견된다. 김태곤, 『한국무가집 3』(집문당, 1978), 352쪽.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신이 어려서는 어리다고 커서는 예절을 지키겠다고 출가해서는 시집살이한다고 못 나오다가 아흔아홉 살이 되어 나왔다고 했으며, 지신이 가정의 어진 주부라고 칭찬받고 자식의 시집살이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세 무녀는 지신의 생김새를 묘사하였는데, 연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이렇다. 지신의 풍채는 엄청나게 크다. 키는 쉰 자고 머리는 용이고 이마는 앞으로 튀어나온 뒷박이마이며, 코는 유자 코, 입은 병어, 턱은 주걱턱, 발은 마당발이다. 이외에 나머지 신체 부위는 무녀마다 내용이 다르다. 무가에서 지신은 매우 크고,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신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지신뿐인 점이 흥미롭다.

지신이 재복을 주는 것도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지신이 농사법을 마련하였고 농사가 잘되어 재물이 불어난다는 것이 골자이다. 세간 마련 내용에서는 집안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인다. 재복 주는 지신과 세간 마련 대목에서 지신의 재복신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이것 다음으로 부안의 성씨는 성주곳에서도 부른 입춘서 붙이기를 노래한다. 성씨는 재복과 같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의미로 지신곳에서도 입춘서 붙이기를 부른 듯하다.

전금순 무가에는 세간 마련에 대한 것이 없으며, 다른 연행자들 무가에 없는 내용이 많다. 지신 생김새 묘사 후, 지신 차례에 대해 말한다. 지신이 세 가지 속옷과 치마도 단속옷·속치마·겉치마 순으로 입고, 저고리도 적삼에 그 위에 또 입고 그 위에 겹저고리를 입으며, 이렇게 차려입고 지신이 나온다고 하였다. 지신 차례에 이어서 월마다 세시풍속(歲時風俗)에 대해 노래한다. 이를 월령가(月令歌)로 구분하였다.

전금순 무가에는 지신의 내력과 도섭에 관한 대목도 있다. 홀 다섯에 어리다, 열다섯에 예절이다, 스물다섯에 시집살이, 서른다섯에 자식 낳는

표5- 지신굿 내용 구성

부안 성씨		정읍 신귀녀		정읍 전금순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시공간 우주론		시공간 우주론		시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시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천지인·우주만물 창제	
	굿 연유		굿 석 설명		굿 장소 굿 연유	
②신 호명, 청신	집터 관련 각 신, 오방위 오방색 지신	②지신 관련 내용	지신 근본 (상지동 주초 밀)	②신 호명, 청신	집터·문(門) 관련 각 신, 오방위 오방색 장군 지신, 12지지 남녀지신	
③지신 관련 내용	지신 생김새 묘사		지신 생김새 묘사			
	세간 마련		재복 주는 지신 (지신 농사법 마련)	③지신 관련 내용	지신 내력	
	재복 주는 지신 (지신 농사법 마련)		세간 마련		지신 생김새 묘사	
입춘서 붙이기	③발원	치례				
④감응, 발원					월령가(月令歌)	
					지신 내력, 도섭	
					재복 주는 지신	
					④발원	
					⑤신 호명	〈불설지신경〉 각 지신(오방위 천황 지신, 대문·성주·오방·토주, 상·중·하방, 육십갑자 천간지지, 하도(河圖) 방위론 ³¹⁾)
					⑥발원	
					⑦오신·발원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
				⑧발원		

31 이영금, 앞의 책(2007), 129쪽에 ‘이칠지신 이팔지신 삼팔지신 사구지신’으로 채록 되었는데, 이는 ‘일육지신 이칠지신 삼팔지신 사구지신’을 잘못 불렀거나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는 하도(河圖)에서 나온 것으로, 네 방위에 따른 수 배열에 의한 것이다.

호강, 마흔다섯에 시집살이, 쉰다섯에 자식 시집살이만 하던 지신이 이제는 화통하여 여러 도섭을 한다. 초저녁 닭 우는 것, 강아지가 문발로 마당 파는 것, 농사 장만하는 것 등이 지신의 도섭이라 한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영험함을 갖춘 신으로의 변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불설지신경>과 각 지신(표5 ⑤ 참고)을 열거하고, <신풀이무가>로 오신 후,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지신곳에서 세 무녀는 신께 발원하고 마친다.

지신곳은 ‘도입·신 호명·청신·지신 관련 내용·발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전금순은 신 호명과 오신을 더하였다. 무가 내용에는 청신 부분에서 집터 관련 신들을 지신과 함께 모시고 있어 지신이 집터와 관계된 신임을 드러내고, 재복 주는 지신과 세간 마련에서 재복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상기동 주초 밑을 지신의 근본으로 삼은 것과 지신이 당시 여인들이 겪었을 법한 일들을 경험하여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것, 거대하고 괴기스러운 지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점 등이 흥미롭다.

5) 삼신곳

군산의 김봉순은 도입에 이어서 아랫목 진제왕, 윗목 마른제왕, 씬줄 관련 제왕을 청하였다. 여기에 탯자리에 놀던 제왕, 짚단 잡고 섰던 제왕도 부른다. 짚은 출산의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에게 짚을 깔아주었고, 아기가 태어나면 왼쪽으로 끈 가는 새끼 한 가닥인 금줄을 문전에 걸어 부정을 막았다.^{32, 33}

3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151쪽.

33 이외에도 아기 낳기 전 순산을 비는 삼신상에 짚과 쌀을 올려놓기도 하였고, 이 삼신상을 삼일 뒤 치운 후에는 출산한 지 3일과 첫이레부터 일곱이레까지 삼신상을 차렸는데, 이때에도 짚이 사용되었다. 태반은 짚으로 싸서 태우거나 물에 흘려 보냈다고도 한다. 한국민속신앙사전(folkency.nfm.go.kr/kr/topic/detail/2177). 전북에서 삼신은 명절 때나 가족 생일 때 성주와 함께 모셨는데, 대체로 삼신은 안방 윗목에 짚을 깔고 상을 차려놓은 형태로 모셨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어서 삼신의 내력에 대해 노래한다. 삼신이 좋은 갖을 쓰고 천상의 올라갔으며 이때 한손에는 명타래·한손에는 복타래를 들었다고 하는데, 명·복을 관장하는 칠성신 성격과 혼용된다. 삼신이 금 가위를 들고 있다는 것에서는 삼신의 태신(胎神)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열 달 임신기간과 짚자리에서의 탄생 즉 해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12지지 방위 부정 제살과 명복 및 훌륭한 자손을 접지해달라고 기원하면서 마친다.

정읍의 신귀너는 산속(産俗)이라고도 하는 출산의례(出産儀禮)를 잘 보여 준다. 우선 도입 다음으로 삼신 근본을 말하는데, 천황당의 은행나무 밑이 근본이라 하였다. 이다음부터는 ‘기자(祈子)-태몽-임신-순산 기원 비손-출

표6-삼신굿 내용 구성

군산 김봉순		정읍 신귀너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공간 우주론		굿 연유
	굿 연유		
②신호명, 청신	각 삼신제왕	②삼신 관련 내용	삼신 근본(천황당 은행나무 밑)
③삼신 관련 내용	삼신 내력		기자(祈子)
	임신기간·해산 주관		태몽
④발원	명복·12지지 방위 부정 제살· 훌륭한 자손 접지 기원		임신
			순산 기원 비손
			출산
			양육
			훌륭한 자손 외형 묘사, 중국 고사 인물과 비교
			과거시험장 가는 길 묘사
			과거시험
		장원급제	
		삼일유가	
		③발원	치성으로 소원성취

앞의 책(2008), 455쪽.

산·양육·홀륭한 자손의 외형 묘사 및 중국 고사 인물과 비교-과거시험장 가는 길 묘사-과거시험-장원급제-삼일유가(三日遊街)를 차례대로 부른다. 임신준비부터 자손이 장성하여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한 후, 이 덕은 성주삼신 좌우 열두조상님네 덕이고 치성으로 공 드렸더니 아니 되는 일이 없다면서 삼신굿을 끝낸다.

이렇듯 전북의 삼신굿은 자손의 점지·출산·양육 및 성공까지도 관장하는 삼신의 성격과 신귀녀 무가에서는 전통 출산의례를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구성은 '도입-신 호명·청신-삼신 관련 내용-발원'이다.

6) 손님굿

손님굿은 손님이 강남에서 나와 조선으로 오는 과정과 조선에 도착 후 조선 곳곳을 방문하여 영험함을 보이는 내용이 골자이다. 부안의 박소녀는 손님 본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손님굿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강남의 대한국 손님네, 우리나라 소한국 손님네 등 여러 손님을 열거하는 부분은 청신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전금순은 서울의 삼각산부터 광주의 무등산까지 각 지역의 특정 산에서 노시던 손님네를 부른다.

청신 다음으로는 손님이 강남에서 조선으로 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조선이 쌀이 좋아서 손님이 온다고 한다. 이를 통해 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손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인다.

그런데 특이하게 박소녀와 신귀녀 무가에서는 손님 이름을 소개한 대목이 있다. 성은 텍이씨고 이름은 안덕씨, 혹은 안개(기) 안덕씨라 한다. 보통 신의 성과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손님은 전북 시골곳에서 유일하게 이름 붙여진 신인 것이다.

손님굿에서는 조선으로 오는 손님 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쉰 세분이 나오시다가 단 세분만 조선으로 온다고 하며, 전금순만이 서른여섯

명이 나섰다가 세분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로써 손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손님 치례를 부른 내용에서는 박소녀가 긴 사설로 대반손님과 부인손님의 치례를 묘사하였고³⁴, 신귀녀가 대감손님의 치례 없이 부인손님의 치례만을 말하였다. 전금순은 대반(대별)손님·호반손님·수부손님의 차림치례가 찬란하다고 하였는데, 이 중 호반손님의 치례를 길게 묘사하였고³⁵ 차림새에 의해 호반손님이 여성신인 것을 알 수 있다.

손님이 조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산과 물을 건너는 노정기(路程記)를 부른다. 그리고 손님이 강 건너는 과정이 나오는데, 배를 타고 순조롭게 조선에 당도하는 것이 아닌 배를 못 빌리거나 사공이 못 간다고 한다. 이에 손님이 화를 내고 떠내려 온 버드나무 잎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범함으로 해결하고 강을 건넌다. 박소녀 무가 중 못 간다고 한 사공의 맏아들께 괴질을 주었다는 내용에서 손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강을 건너 조선으로 도착한 손님은 조선 곳곳을 방문하여 손님에게 치성 드린 집에는 곱게 보아주고, 치성 드리지 않은 집에는 먹점·푸른점을 준다고 한다. 먹점·푸른점은 천연두 흉터가 아닐까 짐작된다.

손님이 조선 곳곳을 방문한 내용 다음에는 전금순만이 다른 사설을

34 대반 손님 호사치례 자니 좋네/물결 같은 외울 망건/대모 관자 달어 씨고/밀화 갓 끈 달어 매고/방초 바지 통행전에 남수 화주 접저구리/몸에 맞게 지어 입고 [...] 夫人 손님 호사치례 자니 좋네/구름같이 허튼 머리/반달 같은 외월 빗에/이리 살살 저리 살살/살 살그리 비껴내어/전반같이 곱게 따서/곱게 곱게 낭자허시고/죽 절 비내 어식 비식 찌르시고/금봉채는 가로 꼭고/귀에는 월계탕 손에는 옥지환(생략). 임석재, 앞의 자료(1970), 495-496쪽.

35 호반손님네 차림치례 찬란허요/물명주 고쟁이에다가 세목을 받쳐 입으시고/월광단의 속치매 일광단의 걸치매/잔주를 곱게 잡아 입으시고/삼선버선 있으면은 삼선버선을 신으시면/외씨같은 버선의 발 맵씨며/감테같이 채진 머리 반달같은 영안빔으로/어리설설 내려빔어 곱게 곱게 올리신 후에는/공작이면 꾀나 윈잠이면 고로잠/나부잠 옥화잠 나가올린 후에는 (생략). 이영금, 앞의 책(2007), 194-195쪽.

침가하여 부른다. 손님이 조선 곳곳을 방문할 적에 이때가 백성이 농사를 짓는 시기라고 하면서 <농부가>를 부른다. 그리고 손님은 잘 빠져 달래야 한다고 하며, 손님이 명·복을 주고 자손이 잔병 없이 출세시켜 달라는 등의 발원을 한다. 이다음은 오방위 오방색 손님·12지지 남녀 손님·여러 손님을 부르고 손님이 흠향하여 소원을 들어 달라 기원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신의 <신풀이무가>와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손님굿의 <고풀이무가>는 다른 절차의 <고풀이무가>가 주로 발원이나 고풀이 관련 내용인 것과 달리 손님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손님이 호호 방문하면서 선한 가증은 행운을 주고 나쁜 가증은 냉미지악을 주신다고 한다. 또한, 소원성취 발원을 하고 빠치는 마음 풀고 잘 가시라 빈다.

손님굿 마지막에는 손님에게 명을 마련하고 복을 점지해달라는 발원을 한다. 그런데 신귀너는 특이하게 발원 전에 부정가시를 노래한다. 다른 거리에서는 주로 발원으로 마치는데 비해 박소녀와 전금순의 손님굿에서는 발원뿐만 아니라 손님이 이 가중에 정성을 받고 잘 떠나시라 비는 송신을 한다. 손님은 집안에 좌정하는 신이 아니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 병을 줄 수도 있으므로 치성 드려 잘 보내는 것이라 이해된다.

손님굿의 구성은 '도입-손님 관련 내용(청신 포함)-발원-송신'이며, 전금순은 여기에 '신 호명·감응-오신' 등을 더하였다. 흥미롭게도 손님은 다른 신들이 집안이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게, 강남에서 와서 잘 돌려보내야 하는 신이다. 아마도 손님은 병과 관련된 신이므로, 병의 특성과 맞물려 한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거쳐 가는 손님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곳곳을 방문하여 영험함을 나타낸다는 설정도 병과 관계된 손님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표7-손님굿 내용 구성

부안 박소녀		정읍 신귀녀		정읍 전금순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①도입	무조신 청신
	사공간 우주론		굿 석 설명		굿 석 설명
	생기복덕법 (生氣福德法)				굿 연유
	굿 시간				
굿 연유					
②손님 관련 내용	손님 근본	②손님 관련 내용	청신(신 호명, 조선으로 나오는 손님)	②손님 관련 내용	조선 곳곳 방문
	청신(신 호명)		손님 이름 소개		조선으로 오는 이유
	조선으로 오는 이유		청신(신 호명, 조선으로 나오는 손님)		청신
	손님 이름 소개		조선 곳곳 방문		노정기
	손님 차례		손님 이름 소개		손님 차례
	조선 오는 손님 수		청신(신 호명, 조선으로 나오는 손님))		조선 오는 손님 수
	손님 차례		조선 곳곳 방문		노정기
	노정기(路程記)		손님 차례		도강(渡江) 과정
	도강(渡江) 과정		조선 곳곳 방문		손님 차례
	조선 곳곳 방문		조선 곳곳 방문		조선 곳곳 방문
③발원, 송신	③부정가심, 발원	③발원	〈동부가〉		
		④손님호명· 감응(흥향), 발원	오방위 오방색 손님· 12지지 남녀 손님· 여러 손님 흥향, 발원		
		⑤오신	〈신풀이 무가〉		
		⑥영험, 오신, 발원, 송신	〈고풀이 무가〉		
		⑦발원			

7) 조상굿

조상굿은 전반부에서 인간의 죽음부터 장례, 저승길 가는 과정을 부르고, 후반부에서 망자를 엄불로 천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³⁶ 다만, 군산의

36 각주 9에서 언급했던 전북 시골굿 11인 중 조상굿이 채록된 연행자는 7인이고, 표8에서 정리한 3인 이외에 군산 장금순의 조상굿이 비교적 사설 내용이 풍부한

김봉순과 정읍의 신귀녀는 조상굿을 망자 천도하는 절차에서 연행하였기 때문에 조상굿에서는 전반부만 부른다.³⁷

조상굿에서는 진시황 같은 인물도 죽음을 면치 못했으며, 초로같이 나왔다가 비호같이 쓰러진다는 등의 인생무상에 관한 내용을 초반에 부른다. 이는 죽음·장례 과정을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전에 도입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참고로 이 이전에 부안의 박소녀는 조상을 청신한다.

사람이 죽는 과정을 묘사한 점이 흥미로운데, 여기서는 저승사자가 항상 등장한다. 저승사자는 강림도령·월직사자·일직사자 등이 있고³⁸, 주로 세 명이 등장하여 삼사자라 표현된다. 보통 저승사자의 모습은 TV에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에서의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쓴 것을 떠올리지만, 조상굿에서의 저승사자는 검은 군복에 오른쪽에는 쇠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왼쪽에는 쇠사슬을 들고 있다. 저승사자가 우레같이 호통을 세 번 치거나 세 번 불러내어 목숨을 끊는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제부터는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박소녀는 '입던 옷을 벗어내어 밭치로 밀어놓고 덩드러이 누여 놓으니'라 하였는데, 이를 표8에서는 정침(正寢)으로 보았다. 죽음이 가까우면 정침에 모신다고 한다. 자손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망자의 옷을 휘두르며 이름을 세 번 부르는 고복(梟復)을 행한다. 이다음에 사자(使者)상을 차리는데, 박소녀는 사자상에 '석상 밥, 돈 석냥, 신 켄레'를 놓는다고 하였다. 사자상은 세 그릇의 밥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마다 다르다.³⁹

편인데, 장금순도 부안 박소녀에서와 같이 전반부에서 조상신 관련 내용을 부르고 후반부에서는 엄불로 천도하는 내용을 노래한다.

37 일반적으로 조상굿은 산자 발원을 위한 전반부에서 부르나, 이 두 무녀만이 망자 천도를 위한 후반부에서 노래하였다(표1 참고).

38 저승사자의 명칭은 연행자마다 다르다.

39 이도희, 「한국 전통상·장례 중 몇 가지 의례절차의 상징성: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심성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2005), 75쪽.

이어서 자손들이 머리 풀어 사람들에게 초상을 알리는 발상(發喪)이 나오고, 신귀녀는 염습(殮襲)과 성복(成服)을 부른다. 그리고 운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여꾼에 명전(銘旌)·공포(功布) 앞세우고 행상을 나가는 것을 묘사하였다. 박소녀는 묘지에 도착 후, 소나무·대나무로 울타리 삼어 평토제와 산신제 지내는 대목도 부른다.

조상굿에는 춘향가의 <기산영수>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⁴⁰ 망자 저승 가는 길을 중국 고사(古史)에 빗대어 노래한다. 그리고 망자가 북망산천으로 가서 손자·친구에게 하직하고 저승 가는 길을 묘사하기도 한다. 김봉순 무가에는 망자가 저승에 당도하여 보게 되는 저승의 풍경을 담았고, 김봉순과 신귀녀 무가에는 망자가 저승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온다.

후반부에서는 염불로 망자를 천도하는 내용이 전개된다(표8 박소녀 ④ 참고). 앞의 절차들에서는 발원으로 마치는 것과 달리, 조상굿에서는 망자를 천도하는 것으로 끝낸다. 박소녀는 이것에 앞서 <신임무가>로 자손의 명과 복, 망자의 왕생극락을 빌고, 오신하는 내용을 부르기도 한다. 이는 이전 절차에서 <신임무가>를 오신하기 위해서만 노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듯 조상굿에서는 왜 죽음과 장례 과정을 부른 것일까. 다른 거리에서 신의 근본이나 내력을 푸는 것처럼 조상신의 내력을 노래한 듯하다. 조상신은 인간이 죽어 신으로 받들어 모셔진 것이므로, 조상의 내력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하는 과정을 부르게 된 것이라 이해된다. 이러한 조상신의 특징은 후반부에서 염불로 천도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조상신은 염불로 극락왕생하도록 잘 보내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조상굿에서는 저승사자에 의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과 저승 가는 길,

40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아지고, 서왕모 요지연의 혼을 보러 따라가며, 채석강 명월야는 이적선을 보러가며, 적병강 추야월 소동파를 보러가며, 상산 바둑 두던 사호선생을 보러가며' 김성식, 앞의 책(2000), 56쪽의 김봉순 사설.

표8- 조상굿 내용 구성

부안 박소녀		군산 김봉순		정읍 신귀녀	
①도입	무조신 청신 굿 연유	①도입	굿 연유	①인생무상	
②청신(신 호명, 기중으로 오는 조상)		②인생 무상	인생무상, 저승사자 따라 가는 망자, 인생무상	②조상 관련 내용	저승사자 등장·치례
십대왕에 메인 조상			〈기산영수〉		저승사자 만난 망자
인생무상			중국 고사(古史)		임종
저승사자 등장			인생무상		장례 과정 (고복, 염·습, 성복, 운구)
③조상 관련 내용	임종	③천도		망자 저승 가는 길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저승 재판
	장례 과정(정침, 고복, 사자상, 발상, 운구)	④조상 관련 내용	저승배 타고 가는 망자		
	망자 저승 가는 길		저승 당도		
	장례 과정(평토제, 산신제)		저승 재판		
	〈기산영수〉			③천도	
	중국 고사(古史)				
	발원				
④염불로 천도, 제실 발원	육십갑자와 납음오행				
	〈염불무가〉				
	〈미타인행 사십팔원〉				
	〈극락세계 십종장엄〉				
⑤발원, 천도, 오신	〈법성계〉				
	〈신임무가〉				
⑥발원, 천도					

저승의 풍경과 재판을 생생히 담고 있는 점이 흥미롭고, 전통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상굿의 기본 구성은 '도입-청신-조상 관련 내용-염불 구송-천도'이다.

정읍의 전금순은 조상굿을 조상청문·조상굿·조상해원풀이의 세 절차로 확대하여 노래한다. 조상청문은 조상신을 청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상은 자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신이므로, 청신하는

절차를 따로 구분하였다고 한다.⁴¹ 전금순의 조상굿에서는 다른 연행자들이 노래한 망자의 장례 과정이나 염불로 천도하는 내용이 없고, 조상신께 치성으로 드린 조상굿을 잘 받아 자손에게 복과 행운을 주십사 발원한다.

조상해원풀이는 조상청문에서 청신한 조상 중 특히 원한이 깊은 조상을 해원시켜 천도시키는 거리이다.⁴² 조상해원풀이는 표9에서와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청신한 조상신께 정성 드린 굿 잘 받고 소원성취 시켜 달라 비는 조상해원풀이, 십대왕에게 메인 고훈들을 풀어주어 천도를 기원하는 지옥풀이, <강타령>·<염불가>를 부르면서 진행한 길닦음, 염불로 조상을 천도하는 예순육갑해원풀이가 그것이다.

<신풀이무가>와 <고풀이무가>는 조상 관련 세 절차와 조상해원풀이 네

표9- 정읍 전금순 조상 관련 제차 내용 구성

제차	구성
조상청문	①청신(아니리) ②도입(무조신 청신-공간 설명-굿 연유) ③청신(창) ④치성 ⑤청신 ⑥치성 ⑦청신 ⑧<천근> ⑨<신풀이무가> ⑩<고풀이무가> ⑪발원
조상굿	①도입(무조신 청신-굿 연유) ②청신 ③오방위 천황 해원신, 12지지 남녀 해원신 ④조상 천도, 해원한 조상에게 소원 기원 ⑤각 조상에게 굿 바침 ⑥치성 ⑦<축문> ⑧발원 ⑨<신풀이무가> ⑩<고풀이무가> ⑪발원
조상해원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해원풀이: ①도입(무조신 청신-굿 연유) ②치성(흥향-음식 자세히 묘사) ③청신 ④공덕 ⑤청신 ⑥저승 가는 길 조언 ⑦인생무상 ⑧굿 연유 ⑨조상 치성 받길 빌 ⑩<신풀이무가> ⑪<고풀이무가> ⑫발원 • 지옥풀이: ①십대왕에 메인 고훈들을 육십갑자 열시대왕 해원경으로 천도 ②<신풀이무가> ③<고풀이무가> • 길닦음: ①<강타령> ②<염불가> ③<신풀이무가> ④<고풀이무가> • 예순육갑해원풀이: ①천·지 해원신, 오방위 천황 해원신, 육십갑자와 남음오행 ②천도 ③보수 받아 저승길 가는 조상 ④염불로 천도 ⑤<극락세계 심종장엄>, <미타인행 사십팔원>, <고성염불심종공덕>, 염불심종발원경문 ⑥<신풀이무가> ⑦<고풀이무가>(24절기) ⑧<정구업진언>, 발원

41 이영금, 앞의 책(2007), 45쪽.

42 이영금, 앞의 책(2007), 54쪽.

번의 세부절차에서 모두 부른다. <신티이무가>는 오신하고, <고풀이무가>는 고를 푸는 의식인데, 참고로 앞에서 살펴본 거리에서는 <고풀이무가>가 발원하는 내용인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전금순의 조상 관련 절차는 다른 무녀들의 조상굿과 구성·내용에서 차이가 많으며, 길뒹임과 고티이, 엄불로 천도하는 대목을 통해 시금곳의 축소판 같기도 하다.

2. 망자 천도

1) 뉘전올리기

뉘전올리기는 한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뉘'을 유족의 머리 위에 얹고 지전으로 그 뉘을 들어 올리는 의식이다. 뉘이 잘 오르면 망자가 굿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망자가 이승과 절연(絶緣)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³ 그래서 무가에서도 '오르소사 오르소사'를 반복하며, 그 가사 중간에 망자를 잘 달래어 뉘이 잘 오르도록 인도하는 내용을 부른다. 뉘이 지전에 의해 오르면, '신이야 신이야 신이로다'로 시작하는 <신티이무가>를 노래하여 오신한다.⁴⁴ 참고로 정읍의 신귀녀는 뉘이 올랐을 때, '올랐구나 올랐네 불쌍헌 망제씨가 뉘이라도 오리시고 혼이라도 오리시고'를 부른다.

전금순 무가에서는 이러한 뉘전올리기의 구성을 따르면서도 전북 다른 연행자들이 부르지 않은 무가를 행한다. 전금순은 <신티이무가> 계통인 <신티이무가> 다음으로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여기서 <고풀이무가>는 망자가 천도하길 바라는 내용이다. <고풀이무가>에 이어서는 <화초타령>이 나오는

43 김성식, 앞의 책(2000), 167쪽.

44 뉘전올리기의 사설 구성은 전북 시금곳을 연행한 11인 중 본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순창의 김야무 또한 동일하다. 김태곤, 앞의 책(1971), 74-75쪽.

데, 망자가 저승길 가면서 꽃구경하라는 의미로 이를 부른다고 한다.⁴⁵

요컨대 녀전올리기는 ‘이승과의 절연(絶緣) 인도-〈신임무가〉(오신)’으로 구성되며, 전금순은 전북 다른 연행자들이 부르지 않은 무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2) 시끔

시끔에서는 돛자리에 망자의 옷을 놓고 둘둘 말아 세우고, 그것에 맨 위에는 솔뚜껑(소당개)을 올린다. 그리고 이것을 망자의 육체라 여겨 향물·쑥물·맑은물을 빗자루로 적시어 씻기는 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신귀녀는 이 절차에서 ‘불쌍하고 서러운 망자씨 씻겨가세’라고 노래한다.⁴⁶ 전금순은 향물로 씻어내고 쑥물로 닦아내고 한이 없이 씻어가고 천도허세라고 부른 후, 〈고풀이무가〉를 구송하며, 망자에게 물로 닦았으니 천도하고 후세에 어려운 일 없게 도와달라는 발원으로 시끔을 마친다. 참고로 전금순은 대부분 〈고풀이무가〉 전에 〈신풀이무가〉를 함께 부르는데, 이 거리에서는 〈고풀이무가〉만 노래하였다.

부안 줄포무악에서는 시끔굿을 소당개시끔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는 성씨가 부른 것이 채록되어 있다. 성씨는 무조신 청신과 굿 연유의 도입을 부르고, 본격적인 씨끔 절차를 진행한다. 앞에서 살펴본 조상굿에서처럼 인생무상, 죽음과 장례 과정, 중국 고사에 빚댄 인생무상에 대한 내용을 전반부에 노래하고, 망자에게 여러 해원신을 열거하여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한다. 후반부에서는 〈친수경〉·‘나무야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는 〈긴염불〉·〈법성계〉를 구송한 〈자진염불〉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신임무가〉와

45 이영금, 앞의 책(2007), 292쪽.

46 김성식, 앞의 책(2000), 167쪽. 참고로 신귀녀의 시끔 절차는 자료집에서 각 절차 설명 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사실을 채록하지 않았다.

극락세계 좋은 곳으로 가길 천도하면서 마친다.

이처럼 전금순은 ‘씨름으로 망자 정화(淨化)-<고풀이무가>(천도)-발원’, 성씨는 전반부에 ‘도입-인생무상-죽음·장례 과정-각 해원신으로 천도’, 후반부에 ‘염불 구송-<신임무가>(오신·천도)-천도’로 구성된다.

3) 고틀이

고풀이는 무명베를 일곱 매듭으로 고를 만들어 이를 하나씩 푸는 행위로서, 망자가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천도하길 바라는 의식이다. 군산의 김봉순과 정읍의 신귀녀는 망자에게 고 풀고 극락세계 좋은 곳으로 가길 노래한다.⁴⁷ 신귀녀는 고틀이 다음으로 <성주풀이>와 ‘천근이야 천근이야 천근맞어 가시던 아무씨 금일망제’를 부르는 <천근맞이>를 부른다.

전금순은 고틀이 제차가 따로 없고,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고풀이무가>를 <신풀이무가>와 함께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⁴⁸ 고틀이는 다른 연행자들이 주로 망자를 위해 하는 것과 다르게, 전금순만이 망자뿐만 아니라 신들을 위해서도 이를 행한다. 일반적으로 망자 천도를 위한 절차에서 고틀이는 일곱 매듭으로 고를 만들지만, 전금순 무가에서는 신의 특징에 따라 매듭수가 달라진다.⁴⁹

산자 발원을 위한 절차에서 <고풀이무가>는 신께 맺힌 마음 풀고 재가집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원하는 발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⁵⁰ 그런데 천도와 관련된 절차 중 길뒹음에서는 고틀이 기능만 있고, 뉘전올리기에서

47 참고로 순창의 김야무는 도입에 해당하는 무조신 청신·공간 우주론·굿 연유를 부르고, 고틀이 내용을 부른 후 <법성계>를 구송하며, 다시 고틀이 내용이 이어지고 나무아미타불을 구송하며 마친다. 김태곤, 앞의 책(1971), 72-73쪽.

48 예외적으로 씨름과 길뒹음 절차에서만 <신풀이무가> 없이 <고풀이무가>만 부른다.

49 예를 들어 조왕은 팔만사천명이라 이것에 앞 숫자를 따서 8매듭을 하고, 철용신은 칠성신과 관련 있다고 여겨 7매듭을 한다. 이영금, 앞의 자료(2007), 40-41쪽.

50 전술했듯이 손님굿에서만 손님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더하였다.

는 망자의 천도를 위하여, 예순육갑해원풀이에서는 24절기를 열거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사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이렇듯 전금순 무가에서는 <고풀이무가>가 절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달라지므로, 내용 구성 또한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고틀이는 김봉순이 ‘고풀이로 망자 해원(解冤)’, 신귀녀가 ‘고풀이로 망자 해원(解冤)-<성주풀이>-<천근맞이>’⁵¹⁾로 구성된다. 전금순은 특이하게 고틀이 절차가 따로 없고 절차마다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4) 길땀음

길땀음은 무명베를 길게 늘이고 그 위에 뉘전이 담긴 뉘상자를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망자의 저승길을 닦아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길땀음 무가는 ‘나무야 나무야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는 염불무가로 저승길을 닦는 내용이 주가 된다. 박소녀는 염불무가 전에 도입에 해당하는 무조신 청신·시공 간우주론·생기복덕법·굿 시간을 노래하고, 십대왕을 열거한다. 후반부에서는 <신임무가>로 오신과 천도의 내용을 부르고, 망자씨 염불로 길을 닦고 왕생극락하시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전금순은 염불무가에 이어서 배 타고 극락왕생 간다는 <강타령>, 동·남·서·북·황의 세계를 구경 간다는 <염불가>, 망자 위해 중천고⁵²⁾를 풀어주는 <고풀이무가>를 노래하였다.

길땀음의 사설 구성은 박소녀가 ‘도입-십대왕 열거-염불로 길땀음-<신임무가>(오신·천도)-천도’, 전금순이 ‘염불로 길땀음-<강타령>-<염불가>-<고풀이무가>’가이고, 신귀녀는 ‘염불로 길땀음’만 채록되었다.

51 참고로 전북 시골에서는 <천근맞이>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이경엽, 「전남지역 ‘망자굿’ 무가의 전개 유형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집(1996), 403-437쪽을 참고하면, 전북과 달리 전남에서 <천근맞이>는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송신 무가로 망자굿 관련 거리마다 불러, 전북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52 망자가 중천고에 걸려 해매지 않게 하기 위해 중천고를 세 번 정도 풀어준다고 한다. 이영금, 앞의 책(2007), 63쪽.

3. 굿 마무리

굿 마지막에 행하는 중천맥이는 이제까지 청했던 모든 신을 송신(送神)하고, 굿판에 몰려온 잡귀잡신 등을 잘 먹이고 돌려보내서 재가집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절차이다. 군산의 김봉순은 '중천이야 많이 먹고 돌아가시오'로 중천맥이를 시작하며, 이어서 <법성계>·<극락세계 십종장엄>을 부르고, 각 해원신과 혼신들에게 많이 먹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김봉순이 부른 중천맥이는 사실 중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 단가불이요'를 반복하는 구조이다.

정읍의 신귀녀는 무조신 청신·공간 우주론·굿 연유·굿 석 설명의 도입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삼사자께 정성으로 드린 굿 잘 받아 불쌍한 망자 잘 인도하고 재가집 안녕을 빈다. 이다음은 불쌍하게 죽은 여러 혼신을 열거하고, 태고태신·중천 등 흠향하여 어려운 일 등을 모두 안고 돌아가시라 한다. 천도를 인도할 적에 가다가 무서우니 진언으로 예방하자면서 진언을 부른다. 여기서 진언은 일 년 열두 달 드는 액을 막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은 '천근이야 천근 천근 천근이야'를 반복하는 <천근맞이>를 부르는데, 불쌍한 금일 망자 가는 날은 있으나 오는 날은 자취가 없으며, 오거든 천리마·사람·성인군자 되어 오시라고 노래한다.

부안의 박소녀는 처음에 무조신 청신과 굿 연유를 부르고, 여러 신을 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제일 먼저 언급된 신은 선영조상인데, 그전에 십대왕을 열거한다. 선영조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승을 관장하는 십대왕에게 풀려나야 하기 때문에 십대왕을 부른 듯하다. 선영조상님이 열두 중천을 거느리며, 이외에도 이 명당 터와 관련된 당산·철웅 등의 신과, 열두 중천, 여러 혼신·손님·귀신, 조상님을 청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조왕을 팔만사천으로 나타내듯이 중천을 '열두 중천'이라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청신 이후에는 말로 '떼이대 꿈! 떼이대 꿈!'을 외치고, 부정 가시는 노래를 부른다.

이다음으로는 '떼이대 꿈!'을 또 한 번 외친 후, 도중천나리·뽕사 중천·봉사 중천·제왕 중천이 들어오는 것을 묘사한다. 이들 중천은 각기 역할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도중천은 제살시켜주고, 뽕사 중천은 이 명당에 재수있게 해 주고, 봉사 중천은 봉사가 오면서 <강타령>을 하고 눈을 떴다 하여 수명장수·부귀영화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제왕중천이 들어와서는 아흔아홉 달 되도록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아 제왕전에 해복을 빌겠다면서 순산 기원 노래를 부른다. 이것에 이어서 순산 후, 아기를 잠깐 어르겠다고 하며 <아기 어르는 소리>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중에 재수·소망·덕 등이 있다 하고, 중천 먹여 보내는 노래를 부른다.

전금순은 굿 연유를 밝히고 여러 중천을 칭해 많이 먹고 돌아가시라고 한다. 그리고 중천맥이 놀이를 진행한다. 박소녀에서와 같이 여러 중천이 들어오는데, 박소녀보다 많은 중천을 부르고 5-6명의 무녀가 역할을 맡아 극으로 행한다. 극의 구성은 한 인물이 등장하여 재담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한 후 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³ 뒷부분에는 <신평이무가>(오신·송신)와 <고풀이무가>(발원·송신), 발원 및 송신으로 굿을 마친다.

요컨대 김봉순은 '도입(굿 연유)-<법성계>-<극락세계 십중장엄>-각 해원신·감응(혼신 흠향)-송신', 신귀녀는 '도입-감응(삼사자 흠향)-재가집 발원-감응(각 혼신 흠향)-진언(액막이)-<천근맛이>'를 부른다. 박소녀는 '도입-십대왕 열거-선영조상·터 관련 신들·중천신 등 청신-부정 가심-각 중천 입장 후 발원-송신', 전금순은 '도입(굿 연유)-여러 중천신 청신-각 중천 입장 후 문제해결(중천맥이 놀이)-<신평이무가>·<고풀이무가>-발원·송신'으로

53 이영금, 앞의 책(2007), 327쪽.

구성된다. 박소녀와 전금순의 무가에서는 여러 중천이 입장하는 내용에서 연극적인 요소가 발견되어 흥미롭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전북 시금굿 무가의 내용 분석과 이에 따른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자 발원을 위한 절차에서는 대체로 ‘도입-신 호명·청신-각 신 관련 내용-(오신)-신 호명(감응)-발원’으로 진행하며, 연행자에 따라 이 구성을 가감한다.⁵⁴ 이 구성 중 도입, 각 신 관련 내용, 발원은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도입을 불러야 비로소 굿이 시작될 수 있고, 각 신 관련 내용은 해당 절차의 대상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발원은 전반부 굿의 목적이 재가집 발원이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항상 부르는 것이다. 또한, 신께 발원하기 위해서는 신을 청하고 신이 화해동심(和解同心)이나 흠향(歆饗) 등을 해야 하므로, 청신과 감응(感應) 또한 이 절차에서 중요하게 불린다. 참고로 여기서는 오신과 송신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⁵⁵

망자 천도를 위한 절차에서는 망자를 어떤 의식 행위로 극락왕생시킬 것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전반부보다 절차간 공통된 구성을

54 참고로 신의 특성으로 인해 손님굿은 송신, 조상굿은 엽불 구송 후 천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친다.

55 그렇다고 굿에서 오신과 송신의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오신과 송신이 춤이나 다른 행위 의식으로 표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설에서만 오신과 송신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찾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의식 행위에서도 무너마다 부르는 무가내용이 차이가 난다. 다만, 뉘전올리기에는 망자 이승과의 절연(絶緣), 씨꿈에는 망자 정화(淨化), 고평이에는 망자 해원(解冤), 길뉘음에는 염불로 망자 가는 길 뉘음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 이 절차에서는 망자를 천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자 발원을 위한 절차에 비해 천도의 비중이 높다.⁵⁶

마지막 절차인 중천맥이는 연행자간 세부내용이 판이하지만, 여러 중천신이 흠향하여 잘 돌아가시라고 부른 것과 도입으로 시작한 것이 동일하다. 또한, 이 절차의 목적이 송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송신으로 굿을 마무리한다.

전북 시꿈굿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굿은 ‘청신(淸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전북 씨꿈굿 무가 사설에서는 이것에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참고로 청신은 산자 발원, 송신은 굿 마지막 중천맥이 절차에서 비중이 높고, 망자 천도를 위한 절차에서는 천도의 기능이 중요하다.

둘째, 전북 시꿈굿의 무가 내용은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산자발원을 위한 절차에서는 항상 도입으로 시작해서 신을 청한 후 대상 신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신이 감응하여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에서 발원으로 마친다. 세부내용이 무당에 따라 다른 중천맥이 또한 도입으로 시작해서 신을 흠향하고 송신으로 끝나는 형식이 연행자간 비슷하다.

셋째, 망자 천도를 위한 절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의식행위에 따라 무가내용이 달라짐으로 가장 절차간 공통된 구성을 찾기 어렵다. 같은 거리 내에서도 씨꿈의 망자 정화, 고평이의 망자 해원 등과 같이 각 거리의 연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을 부른 점을 제외하고는 무너마다 내용 구성이 다르다.

56 산자발원을 위한 절차 가운데 조상굿에서만 천도에 대한 내용을 부른다. 자세한 것은 본 연구 7) 조상굿 내용 참조.

넷째, 산자발원을 위한 절차에는 성주굿의 전통 가옥 짓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문화, 삼신굿의 전통 출산의례, 조상굿의 전통 장례 문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굿이 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체는 무가에 우리들의 삶·문화를 반영한 점에서 흥미롭다.

다섯째, 전금순 무가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다른 연행자에 비해 상당하다. 조왕굿·성주굿 전에 내림을 노래한 것, 〈신평이무가〉·〈고골이무가〉를 거의 절차마다 가창한 것, 조상굿을 세 절차로 확대하여 연행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동안 전북 시김굿 연구는 전금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전금순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금순의 무가를 다른 연행자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전금순에 의한 무속이 전북 무속의 특징으로 논하였는데, 이로써 전북 무속 내에서 전금순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본 연구는 특정 연행자나 서사무가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여러 무녀의 일반무가를 처음으로 정리한 것과 이를 통해 전북 무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 시김굿에서는 천문사상·오행론 등을 기반으로 하거나, 불경·도교의 경전에 영향을 받은 무가 사실이 발견된다. 향후 한국 전통문화와 철학사상 등과 연계한 무가 연구를 진행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무가 사실을 정밀히 분석한 논의가 축적된다면, 음악학·국문학·민속학 등 여러 분야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굿의 절차나 무가 내용에 따라 음악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무가의 음악 분석에 앞서 사실 연구가 필요하며, 무가가 한국기층문화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반영돼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구비문학이므로 민속학이나 국문학

등에서도 무가 사설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 무가 연구의 첫 단계로서, 추후에 다른 지역의 무가와 비교하여 전북 무가의 특성을 더욱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북도립국악원, 2000.
- 김태곤, 『한국무가집 2』. 집문당, 1971.
- _____,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8.
- 이영금, 『전북 셋김굿: 전금순의 무가』. 민속원, 2007.
- 임석재, 「제79호 줄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1집, 문화재관리국, 1970.
- 최길성, 『한국무속지 1: 전남·전북·경남 편』. 아세아문화사, 1992.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짚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1.
-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월인, 2006.

3. 논문

- 김성식, 「전북지역 세습무의 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경엽, 「전남지역 ‘망자굿’ 무가의 전개 유형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집, 1996, 403-437쪽.
- _____, 「전남무가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도희, 「한국 전통상·장례 중 몇 가지 의례절차의 상징성: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심성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32호, 2005, 65-156쪽.
- 이영금, 「오구 씨김굿의 구조와 기능: 전북 단골 전금순의 굿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5집, 2007, 71-105쪽.
- _____, 「전통문화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호남지역 세습무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4집, 2011, 351-395쪽.
- 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24호, 2007, 389-440쪽.
- 임이나, 「공심 무조권(巫祖圈)과 무조신(巫祖神)의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7집, 2013, 223-263쪽.

임승범, 「성주신앙의 지역별 양상과 그 의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2권, 2009, 7-47쪽.

4. 사이트

정통풍수지리학회(www.poongsoojiri.co.kr/board_nwCF20).

한국민속신앙사전(folkency.nfm.go.kr/kr/topic/detail/2177).

국문초록

전북 무속에서 무당은 주로 노래로써 무의식을 진행하여 무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사무가보다 일반무가로 된 절차가 많다. 그럼에도 그동안 서사무가 이외에 일반무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 씨꿈굿 중 일반무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처음으로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굿은 ‘청신(淸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전북 씨꿈굿 무가 사설에서는 이것에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산자 발원을 위한 전반부에서는 대체로 ‘도입-신 호명·청신-각 신 관련 내용-(오신)-신 호명(감응)-발원’으로 진행하는데, 모셔지는 대상 신이 누구인가와 그 신이 무슨 성격과 역할 등을 하는가에 따라 무가내용이 다르다. 망자 천도를 위한 후반부에서는 망자를 어떤 의식 행위로 극락왕생시킬 것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절차간 공통된 구성을 찾기 어렵다.

전북 씨꿈굿 무가에는 성주굿의 전통 가옥 짓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문화, 삼신굿의 전통 출산의례, 조상굿의 전통 장례 문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북 씨꿈굿에서는 천문사상·오행론 등을 기반으로 하거나, 불경·도교의 경전에 영향을 받은 무가 사설이 발견된다. 향후 한국 전통문화와 철학사상 등과 연계한 무가 연구를 진행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1. 9. 22.

심사일 2021. 9. 22.

게재 확정일 2021. 11. 10.

주제어(keyword) 전북굿(Jeonbuk Gut), 씨꿈굿(Sikkeum Gut), 무가(Shaman Song)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Meanings of Shaman Songs in Jeonbuk Sikkeum Gut Im, Ni-na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Saseols of Jeonbuk shaman songs recorded in reports and collections of shaman songs and examine how the content of Jeonbuk shaman songs was composed and what meanings could be found according to content composition. In general, a Gut is in a structure of “Cheongshin - Oshin - Songshin.”

The analysis results of Jeonbuk shaman songs show many were not in this structure. The study first arranged the composition of content in the shaman songs of Jeonbuk Sikkeum Gut and broadened the understanding of Jeonbuk shaman songs by examining the Sikkeum Gut of many different areas in Jeonbuk beyond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ertain performers or narrative dance,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Jeonbuk Sikkeum Gut also includes shaman song Saseols based on the Cheonmun ideas and theory of Five Elements or influenced by the scriptures of Buddhism and Taoism. If studies are conducted on shaman songs in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philosophical ideas, they will help to address the doubts and questions raised in the study.